

한국 광양만 슬러그 적재장내에 서식하는 암컷 피빨고둥
*Rapana venosa*의 군성숙도, 산란빈도 및 난낭 산출

정의영¹, 이봉우², 최기호¹, 박정노¹

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과학부

군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수산학과

자연 생물자원 관리를 위해, 광양만내 인공적으로 폐쇄된 슬러그 적재장내에 서식하는 암컷 피빨고둥 *Rapana venosa* (Valenciennes)를 대상으로 육안적, 조직학적 관찰에 의해 군성숙도, 성비, 산란빈도, 난낭 산출 및 포란수를 조사하였다. 암컷 개체들의 군성숙도(%)는 각고 7.1-8.0 cm의 경우 51.6%이었고, 9.1 cm 이상인 개체들의 경우는 100%이었다. 저염분이나 먹이가 부족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는 폐쇄된 슬러그 적재장내에 서식하는 피빨고둥의 개체당 총난낭수 및 난낭내의 평균 난수는 각각 192-382개/개체와 500개/개체로 최적 염분농도 및 충분한 먹이조건을 갖추고 있는 개방된 지역의 것보다 개체당 총난낭수 및 난낭내 평균 난수가 적었으며, 난낭의 크기도 역시 작았다. 본 종의 포란수는 대략 개체당 96,000-191,000이었고, 산란기 중 적어도 2-4회의 산란빈도(spawning frequency)를 갖는다. 난낭내에서의 발생기간은 약 18-20℃에서 18-19일이었다. 피빨고둥의 배(胚)는 어린고둥이 아닌, 피면자유생으로 부화하였다. 암컷 : 수컷의 성비는 1 : 1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($\chi^2 = 0.23, p > 0.05$).